



제2740호 2024년 11월 17일(나해)

(녹)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 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사진 | 전순철 안드레아(가톨릭사진가회)

요촌성당(2지구)



① 김교동 신부(주임) ② 한 아녜스(원) 김 마르가리타(오른) 수녀(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③ 한민형(사목회장) ④ 윤정식(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
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대영광송>

제1독서 _ 다니 12,1-3

화답송 _ 시편 16(15),5와 8.9-10.11(◎ 1 참조)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
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
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
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
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보
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
이다. ◎

제2독서 _ 히브 10,11-14.18

복음환호송 _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_ 마르 13,24-32

영성체송 _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
로 삼으리이다.

주보 <숲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올바른 종말을 준비하는 삶



송형석 그레고리오 신부
(칠보성당)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면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전례력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시기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세상 끝 날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기, 즉 종말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끝’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끝’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종말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날’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0년대에 모 집단이 휴거설을 퍼트리며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만이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들의 속마음은 뻔합니다. 추종자들에게 위기의식, 불안감을 불어넣어 빠른 시간 내에 교세 확장과 재산 헌납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이런 사이비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주의 이야기를 하느님 말씀처럼 받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종말론의 문제는 종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말과 재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를 뿐, 예수님께서서는 언젠가 오실 것인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마지막에 관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현세의 가치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종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며 지금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영원히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 27

바오로딸콘텐츠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도 있음을 압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제대와 『복음집』에 드리는 공경

성당에서 신자들의 회중 전체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중심은 감실이 아니라 제대다. 거룩한 희생 제사를 위해 봉헌된 제대는 ‘살아 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미사 경본 총지침』, 298항 참조). 제대는 십자가 제사가 성사적 표지로 현실화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미사 거행에 한데 모인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이다. 또한 제대는 성찬례로 이루어지는 감사 행위의 중심이기도 하다(296항 참조). 성당에 들어올 때나 제단을 드나들 때나 제대 앞을 지날 때는 모두 깊은 절을 하며 경의를 표시한다(『주교 예절서』 72항).

전례서들은 전례 행위에서 실제로 천상 실재를 드러내는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한다. 미사에 사용되는 전례서들, 특히 『독서집』과 『복음집』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이기에 특별한 존경을 받는다(349항). 전통 관습에 따라 제대와 복음집에 입을 맞추어 경의를 표현한다(273항).

부제 없는 미사의 경우, 독서자가 『복음집』을 조금 위로 올려 들고 행렬하며 제대 앞에 이르면 제대에 깊은 절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제대 위에 내려놓고 제자리로 간다. 주교 미사의 경우, 부제는 『복음집』을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사제 앞에 서서 제대로 나아가며 제대에 이르면 깊은 절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제대로 다가서 『복음집』을 제대 위에 내려놓은 다음 사제와 함께 제대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시한다(173항).

복음 봉독은 말씀 전례의 정점이다. 복음 선포를 하도록 정해진 봉사자는 주교(또는 사제) 강복을 받거나 기도를 바치며 복음 선포를 준비하고, 신자들은 환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며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다른 독서에 견주어 복음에 특별한 영예를 나타내는 표시로 가장 큰 경의를 보여야 한다. 복음이 선포되는 동안 모든 이는 일어서서 복음을 봉독하는 이를 바라본다.

사제(또는 부제)는 제대 위에 있는 『복음집』을 조금 올려 받들고 향로와 촛불을 든 시종들을 앞세우고 독서대로 간다. 이때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은 독서대를 향해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특별한 공경을 표시한다. 부제가 없을 때에는 신부가 주교에게 축복을 청하여 받은 다음, 복음을 봉독한다(『주교 예절서』 74항 참조).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안식년)

사제(또는 부제)는 독서대에서 교우들을 향해 서서 손을 모으고 인사말을 한 다음, “()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고 말하며 먼저 오른손 엄지로 자신이 선포할 복음의 시작 부분에 십자 표시를 하고 곧바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한다. 미사 거행에 참여한 다른 모든 이도 그렇게 한다. 교우들은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환호한다. 그런 다음 사제는 향로 쇠사슬의 윗부분을 잡은 왼손을 가슴 앞에 고정시키고 『복음집』에 오른손으로 향로를 앞뒤로 두어 번씩 흔들어 세 번 분향한다. 분향은 책의 가운데와 왼쪽과 오른쪽에 한다. 사제가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환호하면, 복음을 들은 모든 이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고 응답한다. 사제는 책에 입을 맞추거나 깊은 절을 하면서 속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소서.’를 바친다. 주교가 미사를 주례할 때, 부제는 『복음집』을 주교에게 가져와 입을 맞추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책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시하고 속으로 기도를 바친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복음집』에 입을 맞추는 대신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한다. 성대한 거행에서 주교는 경우에 따라 교우들에게 『복음집』으로 십자 표시를 그으며 강복한다. 강복이 끝나면 『복음집』은 주수상이나 알맞고 품위 있는 다른 곳에 모셔 둘 수 있다(175항).



제17회 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전시회 개최



교구 가톨릭사진가회(지도=지봉규 신부, 회장=김대평, 이하 사진가회)가 11월 22일(금)부터 12월 1일(주일)까지 평화의 전당 1층 모두네 홀에서 ‘제17회 정기전시회’를 개최한다.

‘영성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총 37점의 작품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김대평 회장은 “회원들이 교구 안에서 신앙인의 의무와 봉사의 정신으로 2024년 사제서품식과 주보 숲정이가 표지 사진을 비롯한 교구 행사기록, 2025년 교구달

력 사진 등에 참여하고 매월 정기출사를 통해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니만큼 많은 교우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과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가회는 1989년 9월 창단, 지난해까지 총 16회의 정기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보 숲정이를 비롯한 교구 역사 기록을 위해 사진으로 봉사하는 제단체이다.

사진 촬영을 배우고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신자들의 회원가입도 기다리고 있다. | 이선숙(교구 기자단) |

문의 : 063)230-1038(교구 홍보국)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제주 여행 연말연시(한라산산행) 12.29~1.1 1.11~13 / 1.16~18 / 1.20~22 / 1.24~26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연형의 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생태/성지순례 연말연시(한라산산행) 12.30~1.2 1.17~19/1.23~25/2.8~10/2.14~16/2.22~24 02-773-1463 / 064-756-6009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군산한우 지니한우 한우 무한리필 / 특수부위 연중무휴 / 기업 단체 회식환영 나운2길38 2층 / 송진희(제노비오) 063.468.2897 / 010.4434.2897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회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피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3.26 대한항공 이태리 일주 9일 419만원 2.24, 3.3 터키,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원 유재구 요한 02)778-8565	하늘고속관광 베트남 5일 베트남(호치민, 봉타우) 5일 2025년 1월 9일(목)~13일(월) 최석재 스테파노 063-286-9595 / 010-3044-5009	세무사 유지상 사무소 국제정 30년 근무/유지상(안토니오) 억울한 세금 불복청구 전문 양도·상속·증여세 등 모든 세무업무 010-8764-5249전주세무서 바로 뒤편(서곡)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장문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암 검진기관 위.대장.항문병 중점, 위.대장 내시경 센터 내과: 나용호 / 외과: 최성양(루카) 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옆	서해젓집 국내산 새우젓 및 각종 고급 젓갈류 도·소매 삼천동 농협 공판장 내 위치 염점례 리더야 063)227-8111 / 010-3675-0091



함께가자! “2024년도 고3 피정”

교구 청소년교육국(국장=소명섭 신부)이 시험과 경쟁에 지친 고3 학생들을 위한 피정을 준비했다. 오는 11월 30일(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열릴 이번 피정은 첫날은 “떠나라.”(루카 10,3) 주제로, 둘째 날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 주리라.”(이사 41,13) 주제로 진행되며 그간 수능 준비로 소홀했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눈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에 앞서 10대로서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와 다짐을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치열한 준비로 지쳐 있는 수험생들에게 신앙을 통해 평온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참가를 원하는 고3 학생들은 11월 24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현화진(교구 기자단) |

2024년 청소년 빛따라 축제

교구 청소년교육국(국장=소명섭 신부)은 11월 3일(주일) 전 주교구청 잔디밭 광장에서 ‘2024년 청소년 빛따라 축제’를 개최했다. “S.E.L.F.-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라는 주제로 32개 본당 5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김선태 주교는 “학생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비추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행사장 광장에 마련된 다채로운 15개의 부스 가운데 ‘우전성당’과 ‘마동성당’은 우수 부스상을 받아 시상됐다.

| 김도숙(교구 기자단) |



Photo 소식-합동 위령 미사

▼ 군산 <사진:김영수(교구기자단)>



▼ 남원 <사진:도통동성당 제공>



▼ 익산 <사진:유인숙(교구 기자단)>



▼ 전주 <사진:한창임(교구기자단)>



- **인보성체수도회 설립기념종신서원미사**
11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2025년 사목교서 연수회**
11월 20일(수) 오후 2시 중앙 주교좌
- **레지오마리아에 관리운영 평가회 및 미사**
11월 23일(토)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
- **사목방문 및 견진**
11월 24일(주일) 오전 10시 아중

이번 주 교구 행사

- **11월 18일(월)**
 - 사랑의 다리 6지구 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영등소리)
 - 교정사목 전주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문정)
 - 치유회복미사(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17차 새만금 생태계복원 기원 월요미사
(오후 3시 해창 갯벌)
- **11월 19일(화)**
 - 경찰사목 베드로회 미사
(오후 6시 10분 경찰청 지하)
 - 시청 로사리오회 미사
(오후 6시 40분 전주시청)
 - 건축자문위원회(오후 2시 30분 교구청)
 - 전주가톨릭신학원 특강
- **11월 20일(수)**
 - WYD 십자가와 성화 인계식
(~26일, 로마)
 - 사회복지시설장, 사무국장 모임
(오전 11시 교구청)

- **11월 23일(토)**
 - 레지오마리아에 관리운영 평가회 및 미사
(오전 9시 30분 평화의 전당)
 - 3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실천 1주차
(오후 2시 평화의 전당)
 - 유향검사도회 재교육 4차(유향검관)
 - 청년워크숍(오후 2시 유향검관)
- **11월 24일(주일)**
 -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월례모임
(오후 4시 유향검관)
 - 청년성서 겨울연수 봉사자 워크숍
(낮 12시 유향검관)

교구 내 알림

- **성모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문의 : 063)453-8400
홈페이지 : www.smo8400.net
-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긴급구조.보호.상담
365일 24시간/문의 : 063-1366-

솔 내 성당 설립 25주년 기념 음악회

일시 : 11월 23일(토) 오후 7시
장소 : 솔내성당 대성전
문의 : 254-2777, FAX : 277-2780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50주년 심포지움

일시 : 11월 18일(월) 15시 명동성당
버스출발 : 오전 10시 교구청
참가신청 : 문자접수(010.9371.4501)

학교법인 해성학원 사무직원 공개채용

- 직위(급) 및 인원 : 교육행정 9급 2명
- 접수 : 2024.11.20(수)~11.26(화) 16시까지
- 접수처 : 전주성심여고 행정실
- *4개학교(전주성심여중.고, 전주해성중.고)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제10회 전주가톨릭상담심리학회 피정

12월 7일(토)~8일(주일) 평화의 전당
주제 : 하느님과 나-나는 누구인가?
참가비 : 회원(10만원), 비회원(12만원)
문의 : 288-9045, 010-7237-4627
신청마감 : 12월 4일(수)까지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11월 30일(토) 14시~12월 1일(주일) 14시
강사 : 김완식 요셉, 박창환 신부
참가비 : 2만원(청소년 무료)
장소 : 초정성령회관/ 043)213-9103
조치원역 12:20, 터미널 다이소 건너 12:40

교구 밖 알림

•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 모임

대상 : 4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카카오채널: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문의: 0507-1306-1505



금상동성당 하늘자리(천주교 전주교구 봉안 시설)

하늘자리 봉안당 관리비 납부 안내 / 문의 : 063)245-0091, 6446 / E-mail : haneuljari@daum.net

▶ 대상 : 2008~9년도에 봉안되신 분 ▶ 관리비 : 75만원(1기, 15년분)

▶ 납부 방법 : ① 방문 :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② 입금 : 전복은행, 519-13-0315500, (재)천주교유지재단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입금 후 전화통화, 고인확인 필수

▶ 계약자(관리자)변경 : 최초계약자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최초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고인의 제적등본 1통, 신규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무연고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또는 연고자의 변동사항 사무실 연락요망

제17회 전주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전시회 초대합니다~~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12월 1일(주일) / 개전식 : 11월 22일(금) 오후 5시

장소 :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1층 보두네홀 / 주제 : 영성과 자연



〈가톨릭사진가회 회원 모집〉

- 자격 : 사진 촬영을 배우고,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신자
- 정기출사 : 매월 둘째주(토) / 정기전시회 : 연 1회(11월 말)
- 문의 : 010-4650-7300(회장) / 063-230-1038(교구 홍보국)